

인간과 자연을 위한 AI 윤리교육



권대봉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북아공파 36세)

새해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윤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학·관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초당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미래정책연구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포럼 온라인 출범식에 참석,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이익이 되도록 AI를 개발하고 활용하자”는 축사를 했다.

다음날인 12월 23일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인간 중심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으로 구성된 한국판 AI 윤리 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한국판 AI 윤리기준은 AI 개발과 활용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성 원칙, 함묵적성 원칙 등 3대 원칙을 세웠다. 10가지 핵심요건은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AI를 장려하기 위해 2019년 5월에 AI 원칙을 채택했고,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6월에 바로 G20이 인간 중심의 AI 원칙을 채택했다. 주요 20개국(G20)과 한국 정부가 인간 중심의 AI 윤리기준을 제정할 때 근간으로 활용된 OECD가 제정한 AI 원칙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다.

첫째, AI는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과 웰빙을 추진함으로써 사람과 지구에 이로움을 가져와야 한다. 둘째, AI 시스템은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간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사람들이 AI 기반 성과를 이해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 있는 공개가 있어야 한다. 넷째, AI 시스템은 수명주기 내내 견고하며 안전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잠재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AI 시스템을 개발·배포 또는 운영하는 조직과 개인은 위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기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AI 분야에서 윤리기준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AI 개발자와 AI 활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이 오용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보안 위협관리 영역에서 실용성과 유연성이 있기에 AI 원칙 준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에 AI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2021년 새해에 산·학·관이 협업해 AI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인간은 물론 자연에도 이로운 AI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교교육은 물론 기업교육을 비롯한 사회교육에서도 AI 윤리교육을 촉진하자. 둘째, AI 윤리에 관한 교육 내용·방법, 평가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 가능한 AI 윤리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자. 셋째,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교육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주자. 넷째, 근로자들이 AI 윤리를 습득하고 공정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지원하자. 다섯째, AI 윤리교육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초월해 협력하자.

OECD가 AI는 인간과 지구에 모두 이롭게 작동해야 한다고 천명한 것에 주목해 인천재능대는 AI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양강좌로 이수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미래사회와 인공지능과 윤리’를 신설한다. AI 윤리교육을 학교교육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 기업교육, 과학기술교육 분야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1년 1월 7일 (fn광장)

권옹렬 고문 대종회에 <국역 금사金史> 등 기증



국역금사



금사



금조사연구

권옹렬 고문이 단국대학교에서 한글로 번역한 “국역 금사金史”(전 4권)를 대종회에 기증했다. “금사金史”는 중국 정사(正史)이다. 또한 재야 사학자 윤명수씨가 저술한 “금조사연구金朝史研究” 및 “금사金史” 등도 대종회에 기증했다. 윤명수씨는 저서에서 동명 김세렴(東溟 金世廉: 1593~1646)이 일본 통신사로 갔다 돌아오면서 남긴 동명해사록(東溟海槎錄)에 ‘완안아골타는 권행의 후손(完顔阿骨打即權幸之後)’이라는 내용 등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금나라 시조 완안아골타(完顔阿骨打)는 시조 태사공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2003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주 지역 등 현재 중국 영토 내에서 전개되었던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라는 논리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추진했다. 정치적 영토와 그 정치적 영토 안에서 전개되었던 과거 역사적 강역의 불일치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주에서 흥기했던 금나라 등의 역사 문제는 단순히 역사 그 자체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공동체와 민족공동체의 역사와 한민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때문에 완안아골타가 시조 태사공의 후손이라는 주장은 단순히 안동권문이라는 한 씨족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가적으로 치밀한 역사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역방송인 KBS에

서 2009년 9월 5일 역사스페셜 “만주대탐사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는 신라의 후예였다’”를 방송하여 금나라 시조 완안아골타가 신라인이고 시조 태사공의 후손이라는 설을 내세워 만주의 역사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기보다는 우리 한민족 역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중국의 동북공정의 허구를 지적한 바 있다.

단국대학교 북방연구소에서는 5년여에 걸쳐 총 135권 규모의 금나라의 역사서인 “금사金史”를 한글로 완역하고 상세한 주석까지 달아 전 4권으로 간행하였다. “금사金史”는 본기(本紀) 19권, 지(志) 39권, 표(表) 4권, 열전(列傳) 73권, 금국어해(金國語解) 1편(篇) 등 총 13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125년부터 1234년까지 존속했으며 10명의 황제를 배출했다.

아직은 금나라 태조 완안아골타가 안동 권문의 시조 태사공의 후손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확보 등에서 발견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안동권문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깊고 폭넓은 연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할 역사적 과제임에는 틀림 없다. 그런 측면에서 권옹렬 고문이 “국역 금사” 전 4권을 구입하여 대종회에 기증한 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사료의 확보는 물론 국가의 100년 대계와 후손들의 미래를 염두에 둔 심모원려(深謀遠慮)하는 역사적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안동권문은 안동권문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 막중한 역사적 소명감 또한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편집국장 권행완

안동권씨 양평지역종친회 창립 준비

안동권씨 양평지역종친회가 금년 3~4월경에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권용만(權容萬, 추밀공파 38세·사진) 회장은 22일(금) 오전 11시 대종회를 방문하여 권해옥 대종회 회장에게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보고했다. 권용만 회장은 지난해부터 양평지역종친회 축친들을 만나 회장단 등을 구성하여 창립을 추진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창립총회



를 거행하여 양평지역종친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현재까지 구성된 임원현황은 회장 권용만, 부회장 권효양, 사무국장 권병정, 홍보국장 권영근, 총무 권서은(여) 등이다. 양평군에는 500여 세대의 축친들이 거주하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동정



▲권준학 축친이 1일 신임 농협은행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농협은행을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선도은행’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행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경영 방침으로 △고객·현장 중심 △디지털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제시했다.



▲지난 2020년 12월 16일 ‘제48회 보건 의 날 기념식’에서 권궁록(경희치대 보철학교실) 교

수가 치의학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도핑 콘트론텐터 권오승 박사가 사단법인 한국약제학회 2021년도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권오승 신임 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학회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갔다.



▲권해연 국립 산림 과학원 연구관이 국가상징물인 무궁화의 보급·선양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권해연 연구관은 나라꽃 무궁화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우량 신품종 및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저술, 홍보 등의 연구 확산은 물론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무궁화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뇌연구원(KBRI) 권웅우 기술원이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한국뇌연구원이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12월



21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웅우 기술원은 평소 임직

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안전문화 확산과 예방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의 적극적/체계적 운영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안전관리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점 등공로를 인정받았다.



▲권범선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재활의학과)가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으로 보

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지난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에 증진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재활의학회 보험이사를 역임했다.



▲권민호 청주 서부소방서(사진 오른쪽) 소방교가 23일 오전 9시 취약계층

선사업 추진 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소방교는 2014년 12월 소방에 입문해 2급 응급구조사 중 충북 최초로 하트세이버를 3회 수상한 바 있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마켓 액세스(Market Access) 부서 총괄 권선희 전무가 지난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 ‘2020 보건산업&연구개발 성과 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을 수상했다. 권 전무는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혁신 신약의 도입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온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權紀 1100년의 역사책(通史) 발간 사업 안내

대종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권기 1100년의 역사책 발간 사업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권옹렬 고문의 비용 전액 후원에 힘입어 발간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큰 공적을 세운 역사적 인물과 안동권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권문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들의 사료를 모아 ‘權紀 千百年史’를 집필·발간합니다.

- 안동권씨 100만 족친께서는 일체의 비용은 무료이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직계조와 방계조의 위대한 업적과 공(功) 등이 벽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안동권씨 1100년 역사책에 수록·기록될 수 있도록 다같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각 파종회와 지역종친회에서는 각 파의 현조님과 지역인물들이 빠짐없이 수록·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5개 각 파종회에서는 5월말까지 편집위원 1명씩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기 : 안동권씨 득성(得姓) 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 집필대상
 -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 3정승 6판서 등 문무관 9품 이상, 청백리, 공신, 과거급제자. 부마(駙馬), 의병, 열사, 정려문이 세워진 충신·효자·효부, 열녀, 내·외명부 등에 들어간 안동권문의 여인 등
 - 임진왜란·병자호란·일제강점기 때 공신, 의병, 자선가, 독립운동가 등

- 문의 : 전화번호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편집국장 권행완 010-6892-5253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 이메일 주소 : andongkwonmun@hanmail.net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